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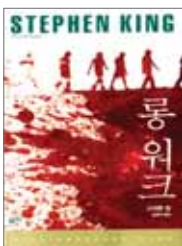
트렌드 코리아 2016  
김난도 외 지음

전문가가 본 10대 키워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전망한 2016년 대한민국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는 MONKEY BARS로 요약된다. '멍키 바'는 어린이 놀이터나 군대 유격장에서 볼 수 있는 구름다리를 뜻한다. 2016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의 골을 원숭이가 구름다리를 넘듯 신속하게 건너, 안정된 2017년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겼다.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동향학부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6명이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16'은 '원숭이의 해' 위기의 터널을 재치와 기치로 극복하려는 바람을 담았다. 저자들이 전망하는 다른 키워드는 '플랜 Z'다. 이 말은 최신인 플랜 A, 차선인 플랜 B가 모두 실패할 경우를 대비 최후의 보루를 뜻하는 '구명보트 전략'이다. 이 밖의 키워드로는 미래형 자급자족, B급의 반란, 1인 미디어를 들 수 있다.

〈미래의 창·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통위크  
스티븐 킹 지음

자유 잃어버린 독재국가 모습

세계적인 이야기의 거장 스티븐 킹이 생애 처음으로 집필한 소설 '통 위크'가 출간됐다. 철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한해 2편 이상의 신작을 꾸준히 발표하며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5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통 위크'는 스티븐 킹이 1979년 리처드 바트만이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바 있다. 소설은 전체주의 국가가 된 미국을 배경으로 국가 스포츠 '통 위크'에 참가한 소년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최저 제한 속도(시속 6.5km) 밑으로 떨어지면 경고를 받고, 3번의 경고 이후는 바로 즉결 총살형에 처해진다. 대신 최후의 생존자이자 우승자는 궁극의 보상을 받게 된다. 작품은 소년들의 낙오에 죄의식 없이 총질을 해대는 군대와 그 모습에 열광하는 어리석은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자유 의지조차 잃어버린 독재국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황금가지·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닭, 인류가 사랑한 어느 '새'에 관한 보고서

치킨로드

앤드루 롤로 지음



퀴즈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 열거하는 것들은 무엇을 말할까?  
신들의 정령, 부활의 상징, 노름의 도구, 용기의 상징, 엄청난 정력의 주인공, 유용한 실험 수단, 온갖 농담의 주인공 공...

눈치 빠른 이들에게라면, 대략 감을 잡았을 것이다. 아직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힌트를 더 제시한다. 지상에 200억 마리가 살고 있고 매년 1억 톤이 소비된다. 마지막 힌트... 국민 간식으로 불린다. 그렇다. 정답은 치킨(닭)이다.

닭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인간과 관계를 맺어왔다. 언급했다시피 매년 1억 톤이 소비된다. 그뿐인가. 달걀은 매년 1조 이상이 소비되며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기도 한다.

만약 내일 당장 지구상에서 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2012년에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멕시코에서 닭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 돼 달걀값이 오르자,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왔다. 같은 해 이란에서 닭고기 값이 세 배나 폭등하자 경찰청은 방송국에 닭고기를 먹는 장면을 방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이는 닭을 '깃털 달린 맥가이버 칼'이라고 말할 정도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의미다.

과학 분야와 테크놀로지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앤드루 롤로가 펴낸 '치킨 로드'는 닭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문명에 힘을 실어준 닭의 영웅 서사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인류가 사랑한 어느 '새'에 관한 종합 보고서다.

저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며 닭을 분석한다. 그는 세계를 발로 뛰 어 알아낸 정보들을 역사, 심리, 종교, 생물학, 유전학, 고고학 등의 학제적 지식과 교차해 닭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고대 제국부터 현대 경제까지 문명 확산에 닭이 얼마나 결정적 기여를 했는가를 파노라마처럼 풀어낸다.

닭의 이동 경로만 봐도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가늠할 수 있다. 저자는 닭의 조상인 적색아계가 동남아시아의 밀립에



닭은 고대부터 종교적 상징이자 유용한 치료약, 애완동물, 사치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어왔다. 〈책과 함께 제공〉

서 태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유럽을 거쳐 멜라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섬)로 이동했다고 본다. 이곳에서 하와이 섬, 이스터 섬(태평양 연안 칠레의 섬)을 지나 중국 남부로 들어와 한국과 일본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닭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이유도 무엇일까. 언급했다시피 인류 문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닭은 고대부터 종교적 상징이자 유용한 치료약이었다. 나이가 애완동물이자 사치품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찰스 다윈은 닭 덕분에 진화이론을 확고히 정립했고 루이 파스퇴르는 근대적 백신

신을 만들었다.

저자는 희생과 투쟁의 측면에서도 닭을 들여다본다. 그 대표적 사례가 투계(닭싸움)이다. "투계는 전쟁보다 덜 파괴적인 방식으로 공격 심리를 해소시킨다..... 우리가 닭들에게 우리 대신 나쁜 짓을 하도록 시키기 때문에..... 대륙, 언어, 세기가 다르듯이, 방법, 전통, 의례, 구체적인 신념 등도 다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여 한 가지는 동일하다. 닭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쁜 짓을 한다. 닭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죽는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닭이 지닌 성적인 면을 인간과 비교했다는 점이다. 암탉을 상대로 한 수탉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 그것이다. 수탉의 이런 면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혐오스럽기도 하다.

이렇듯 저자는 "사람은 닭과 오랜 관계를 맺어오며 감탄과 혐오, 매혹과 공포 사이를 오갔다"며 "이런 양극단 감정의 범주는 하느님, 성별, 젠더, 그리고 관능적이고 기괴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향한 인간의 양극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이 떠오른다. 종교롭게도 이 질문은 저자가 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대체 치킨이 튀기에 우리는 이 새를 이토록 많이 먹고 있는 것일까?"

〈책과 함께·1만9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남성상'은 사회적 관습·문화·제도에 의해 학습된다



남자의 품격  
차용구 지음

일반적인 '남자'에 대한 상은 대부분 중세 기사들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 12세기의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은 이렇다.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비롯해 배짱, 통찰력, 지식,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감정을 절제하며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자제로 요구된다.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은 변한 것 같지 않다. 사실 남성상도 사회적 관습적 문화, 정치, 제도, 교육 등에 의해 학습되고 구성된다. 남성다움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중세의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중앙대 차용구 역사학과 교수가 발간한 '남자의 품격'은 12세기 말에 집필된 '긴느 백작 가문사'의 주인공 '아르놀' 백작의 일생을 통해 그가 어떻게 '남자'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아르놀은 프랑스 북부 플랑드르 지방의 기사다. 군소 귀족 가문을 책임져야 했던 그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 제도에 의해 남성성을 학습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저자는 아르놀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교육, 성인식, 성공, 출세, 연애, 결혼 등 다양한 국면에서 어떻게 도덕적 이상을 내면화하였는지를 추적한다.

저자는 중세시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다고 본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여성이었지만, 남성들도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물론 가부장제 사회의 정점에 선 소수의 엘리트 남성은 권력과 이익을 독점했지만, 책은 '남자'라는 젠더에 관한 역사적 성찰이며 남자가 젊어지고 가야 하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한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남자'는 어떠한가.

〈책세상·2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여성 억압·권력 생산 수단이 된 월경



월경의 정치학  
박이은실 지음

"월경전증후군이란, 여성 몸의 현상을 질병으로 분류한 남성중심적 의료 체계가 만든 결과물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여성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자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인 '월경'을 정치학적으로 연구한 책 '월경의 정치학'이 출간됐다. 젊은 여성학자 박이은실이 펴낸 '월

경의 정치학'은 여성 몸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생물학적 사건, 월경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성 억압과 권력 생산의 수단이 됐는지 고찰한다. 하나의 평범한 생물학적 과정인 월경이 각 사회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주목받고 의미 부여되고 규제되면서, 어떻게 월경하는 이들의 삶에 그토록 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장 '월경은 어떻게 금기가 되었나'에서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월경을 고찰하고, 2장 '여성의 몸을 통제해온 종교'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종교들의 월경에 대한 입장을 개찰한다.

〈동녘·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 강진칠량봉황옹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옹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옹기입니다

A 2말 40kg 40L, B 1말 20kg 20L, C 1.5말 15kg 15L, D 3말 60kg 60L, E 2말 40kg 40L, F 1말 20kg 20L, G 0.5말 10kg 10L

강진칠량봉황옹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리17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박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립, 향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6~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우출신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우지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